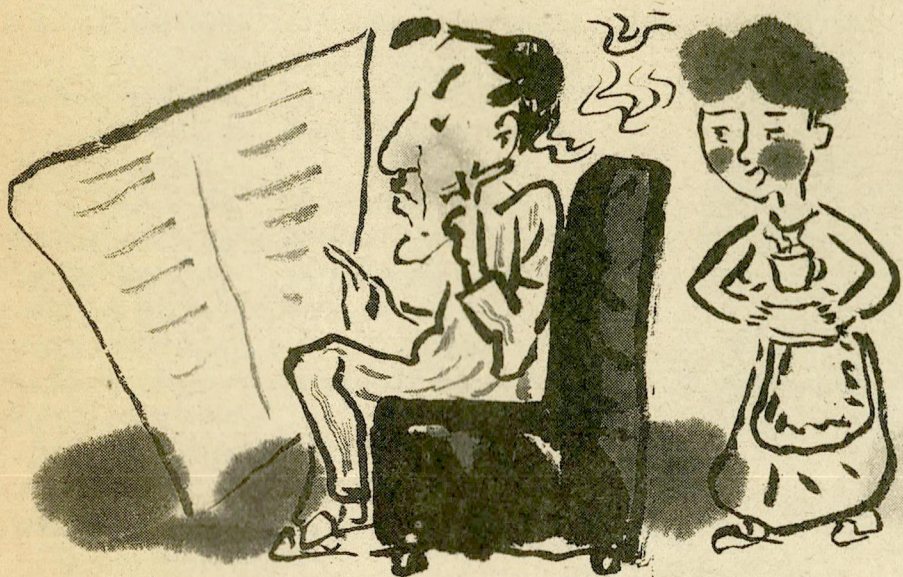


함께 생각해 봅시다① - 남성의 허세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권위

남성적 이미지 주는 대신 또다른 강박관념으로 작용



표정이나 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든 겁니다. 허세는 '나약'에서 출발합니다. '만들어진 권위'는 사소한 행동에서 금방 들뜸이 나는데 이렇게 들뜸날 행동을 왜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국 박상숙 주부(서울 장안동 거주)가 발견한 남편의

"우리 남편은 평소 말이 적고 표정이 없는 편이에요. 퇴근 후에는 '별일 없었어?', 애들한테 '생활 잘하고 있느냐?', 한 마디씩 툭 던지고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마주 대하죠. 손이 커서 그런지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손대 생각도 않고 애들 학업 문제 등에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요. 바깥에서 일하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적극이죠."

박상숙 주부(동대문구 장안동)의 '남편론'이다.

"그러나 일단 화가 나면 무척 무서워요. 한번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침대맡에서 놓고 있던

큰녀석이 아빠가 퇴근하신 것을 못 보고 인사를 안했어요. 침대맡에서 뒤늦게 나온 아이를 보자 남편은 다짜고짜 매를 대더라고요. 이유인즉, '사내자식이 음침하고 소심하게 논다'는 거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며 화살의 방향이 내게로 쏠렸는데 평소 남편 눈치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나는 유구무언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의외로 소심하고 어린애같은 면도 있어요. 애들이 투정할 때 한번 참고 토닥거리려 주면 진정이 되는데 똑같은 방법이 남편에게도 적용된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주문이 참 많아요. 그럴때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더 가요. 평소 근엄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남편들의 양면성', 즉 남편이 보여줬던 '근엄한 태도'와 '어린애의 투정' 사이에는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전자는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고 후자는 자연에서 우러나온, 있는 그대로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친의 한 주부는 이러한 남편들의 이중성을 비교적 잘 꿰뚫어 보고 있다.

"남자들은 허세가 많아요. 남편이 보여 주는 권위주의적

'새로운 모습'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식없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본래의 모습인 것이다.

한편 남성의 권위주의도 그 나름대로의 핑계(?)는 있다.

작은일에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면 '공처가'로 매도하거나 '숫기가 없다'는 식의 비아냥을 듣게 되는 사회풍토가 있다. 또 진중한 표정과 태도가 권위주의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놈'이라는 남성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사실상 많은 남성들이 그러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권위가 부자연스럽

게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박혜란 씨(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이에 대해, "권위주의 사회에서 '권위'를 만드는 일은 남성에게 또 다른 강박관념으로 다가왔다."며 "위계서열구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남성은 부자유스런 행동을 배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위적인 남성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며, 권위가 몸에 배어 있지도 않고 권위에 접근하려고도 하지 않는 여성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허세를 만들어 냄으로써 얻는 보상이 솔직함으로써 얻는 자유보다 클 수 있을까?

97.4.16

일본 직장남성 퇴직뒤 생활 적응못해

회사일 열중 여가생활 몰라

【도쿄=연합】 회사일에만 몰두하는 직장인들은 퇴직 뒤 대부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직장 남성들은 자기들은 회사를 위해 살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결과 그들은 퇴직 뒤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축된 인간이 되기 쉽다고 일본의 한 여가시간개발센터가 낸 연구보고서가 지적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은 퇴직 뒤 대개 회사일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나 동료·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일요일에는 사업장 골프를 치러 나간다.

이들이 가족을 대하는 시간은 평일에는 단 몇분, 주말에는 2~3시간 정도가 고작이다.

그래서 정열적으로 일하던 직장인이 정년퇴직하면 대부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갑자기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만다.

여가센터가 펴낸 보고서는 대부분의 일본 남성들이 가정생활

그들은 직장일에 온 힘을 쏟아내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용한 다거나 진공청소기를 만진다거나 요리를 할 줄 모른다. 아이들의 친구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웃과도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봉급생활이 끝나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그들은 대체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부인들은 텔레비전이나 보고, 먹고 마시는 일 이외에 아무일도 할줄 모르는 남편들을 전처럼 극진히 섬기려 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퇴직자들이 부딪치는 큰 문제는 더이상 생활비를 집에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생

알래스카 석유 멕시코 민간화력

는 권위의 상실이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요즘 정년기를 앞둔 사원과 그들의 부인을 대상으로 퇴직 뒤의 생활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